



철재여래좌상

“절 아래는 마을이 없다”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14 지리산 실상사

으로 짚게 들어가면 있어.”
 “이 동네만해서 팔십 가구 되는데, 세 간데 다 합치면 백가구가 넘어.”
 임복달(81) 할머니와 신순남(67)씨가 연이어 나선다.
 “감동이 직 아버지, 양씨라. 도갱이라. 양도갱이. 부친시님이라. 절에서 짚 어른이라. 지금은 아들네들이 잘 살아. 손자도 있고 다 잘 되었어.”
 임복달(81) 할머니는 오래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다.
 “주지 밑에 집 지키는 강원이라. 쌀 그런 거. 세미가 들어가면 말을 땅에다 노면 평그렁평그렁 소리가 나. 궤도 어디 갔는지 몰라. 사다리 뒹고 올라가고 그런 궤가 있었어. 쌀 담는 궤.”
 묻지 않은 말이 잘도 이어진다. 아무리 절 자산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사다리를 뒹고 올라갈만한 크기

을 많이 짓느냐고 물었더니, 엉뚱한 대답이 들려온다.
 “집승 땀에 아무 것도 못해 묵어. 여기가 돼지(멧돼지)가 생기서 논이고 밭이고 암갯도 못해 묵어. 산돼지뿔이 아니라, 산까치 같은 것 많아서 못해 묵어.”
 신정자(67)씨의 말이다. 지리산에 붙어 있는 마을이라,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 또 여기저기서 말을 한다.
 “지금 집승이 와이리 많아요?” “키운게 그래제.”
 “집승을 다 여기다 키우나 몰라. 청와대로 몰고가지.” “고구메도 송구고, 옥수수도 송구고, 감자도 송구고 그래지만, 요새 못해 묵어. 옥수수도 다 묵어 번지고 그래.”
 개발에 앞장선 자들은 막대한 자본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더욱 개발을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자들에게 온다. 지리산 끝자락에서 논밭이나 일구며 살았던 이들은, 막힌 도시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또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이다. 인간과 다른 동식물의 공생을 말하는 이는 많지만,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산문에 기대어 지리산을 바라보니, 인간이 작음을 비로소 알겠다. 실상사=이대홍(시인·분지 객원기자)



실상사 석등



백일리

평지 사찰 텃 절 보다 높은 곳 마을 위치 하천 하나 사이로 '이웃사촌'으로 살아 지리산 가까이 있어 야생동물 피해 심각

또 길을 잘못 들었다. 88고속도로에서 지리산 나들목으로 나가야 하는데, 습관처럼 남원 나들목으로 나간 것이다. 실상사에 갈 때마다 하는 실수다. 할 수 없이 험하기로 유명한 정령치를 넘는다. 길은 육망을 나타내고, 그 육망이 우리의 어머니산인 지리산의 속살 깊숙한 곳을 헤집어 놓은 곳이 정령치 길이다. 한 시간 가량을 긴장하며 운전을 하였더니, 실상사 앞에 이르러서는 기력이 다 빠진 느낌이다.

해탈교를 건너면, 돌장승 두 기가 양쪽으로 서 있다. 웃는 모습이 따스하고 평화롭다. 장승들 뒤로 펼쳐진 들에는 푸름이 짙어가는 녹음이 펼쳐진다. 산이라고는 하지만, 평지에 가까운 낮은 산이 실상사 뒤를 받쳐준다. 농로를 걷듯 평평한 길을 걷는다. 산 길은 곳에서 나는 갖은 약초를 따는 노상이 몇 군데 있다. 오가며, 더덕은 물론이요, 겨우살이 떨어 놓는 것까지 판다.

9산 선문의 하나인 실상사이지만, 현재의 규모는 크지 않다. 실상사는 신라 흥덕왕 3년(828년) 흥취종 각 대사가 창건한 뒤 수월 스님과 편운 스님을 거처며 사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화재를 겪고 중창되었는데, 고종 20년(1883년) 방화에 의해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워낙 큰 고찰이었던 탓에 남아있

는 문화재는 빼어난 작품들이다. 불국사 석가탑을 보수 공사할 때 상륜부의 모양을 본떠 했다는 삼층석탑을 비롯하여, 수혈화상 능가보살상을 비롯한 여러 기의 부도와 장건 때부터 있었다는 철재여래좌상 등이 그것이다. 철재여래좌상은 약사전에 자리하고 있는데,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만 땀을 흘린다고하여 세간에 회자되기도 하였다. 보광전에서 바라본 석탑들과 석등의 모습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실상사는 평지 사찰인 탓에 절 아래에는 마을이 없다. 오히려 마을이 절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하천 하나를 사이로 마을과 절이 저마다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 절에서 나와 마을로 향한다. 백일리라는 마을에 들어선다.

“원래 이름은 통내라. 뱀뱀이에서 물이 내려와 큰 내로 들어가. 그래 물이 합쳐진다고 통내라.”

반장택으로 불리는 신정자(65·남원 백일리)씨의 말이다. 마을 뒤편으로는 지리산이 이어지는데, 어지간한 높이까지는 밭이 개간되어 있다. 마을회관에는 할머니들만 하나 둘 몰려든다. 남자들은 다 일하러 갔다 한다.

“이 동네가 세 동네라. 저 우에 풀짜기 가면 장자터가 있어. 부자 터라고. 신작로 뚫려가 나가서 오른쪽

의 궤가 있었다는 것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절의 자산이 대단하였는데, 난리가 난 후 많은 것들이 소실되었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이내 전쟁 때의 경험담으로 이어진다.

“막 총알이 날아가는 소리가 웅웅웅웅 들리고, 이불 뒤집어쓰고 이어도 총소리가 들리고, 우리 동네 사람은 총소리가 나니, 부석으로 들어가고 숲투방 속으로 들어가고 그랬제.”

“술투방은 내가 돌려 썼는데.”

“전하고 비하면 이견 절도 아니라. 시방은 마이 없었어. 옛날에는 논도 많고 중도 많고, 논쇠로 만든 불기(절에서 쓰는 그릇)도 많고 그랬제.”

“이 제게 사람들이 돈 사러 가고 그랬어. 나무라도 해서 팔아가지고, 절로 쌀 사러 갔어. 쌀 팔러 간다 그랬어. 쌀 사러 간다는 말은 쌀 팔러 간다 그랬어.”

이 마을에서 태어나 아직껏 살고 있다는 임복달(80·백일리) 할머니의 말이다.

“옛날에는 간짓대로 아주아주 큰 기를 세웠어요. 근디 우리 동네 기가 제일 어른이라 글드라고. 농사져 놓고 두리(두레) 논매고, 그런 담에 남자들이 한꺼번에 논매고, 술 먹고 놀고 그랬제.”

두레에 관한 이야기다. 밑줄에 논밭이 많아 농사들

(사)한생명 임선주 사무국장

숨 쉬는 것도 빌려온 것 '내것이란 욕심 버리세요'



주사무국장(43·사진을 만났다)

“인드라망은 느긋한 공동체죠”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불교의 진리를 현대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현대문명은 육

망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체제를 유지한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만족을 모른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는 그 욕망을 더 부추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쟁까지도 불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그늘에는 기아와 양극화라는 괴물이 자란다. 내가 살기 위해 너에게서 빼앗아야 하는 문화는 착취자와 피해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우주의 모든 것은 따로 있지 않다는 불교의 진리를 바탕으로, 근본 도량 실상사, 인드라망 생활염동조합, 중등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학교, 실상사농장공동체, (사)한생명 등이 있다. 실상사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 나눔 화합 수행의 날이 있어요. 사부대중이 모여 함께 등산도 하고, 수행도 하고, 서로 인사도 하고하는 날이죠.”

임 국장은 귀농하려는 사람들에게 편하게 살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한다. 다른 농촌과 다르게 경제력을 확보할 비결 같은 것도 없다. 숨 한 번 쉬는 것도 다른 곳에

염불선의 재천명 천일기도 법회



오늘
시방삼세의 모든 불보살님들이시여
시방삼세의 모든 화엄성중님들이시여
이 도량에 꼭 오셔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일체중생과 삼라만상의 본질은 본래로 아미타부처님의 일대행상 一大行相인데 우리 중생들의 미혹한 업력으로 끊임없이 생사윤회 하나니 석가세존께서는 이러한 우리 중생들을 고뇌에서 건져주시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며, 견성성불케 하도다.

금타 대화상께서는 부처님으로부터 혜능조사가 이르는 순선시대의 선법인 반야바라밀에 입각한 일삼삼매 一相三昧와 일행삼매 一行三昧를 보리방편문善提方便門으로 교시하였으며, 이 혜명을 승계하신 무주당 청화대종사께서는 본래의 마음자리를 회복하여 생사를 해탈하고, 참다운 행복과 대자유를 영원히 누리시는 염불선念佛禪을 주창하시며 대가람인 청정도량 성륜사를 창건하시었습니다.

불보살님들이시여

그동안 부질없는 소견과 허망한 망상을 깊이깊이 사무치도록 참회 하오며 이제야 원적에 드신 큰스님을 가슴 저미도록 그리워하며 염불선의 참 도량인 전남 곡성군 옥곡면 옥곡리 설령산 성륜사에서 새롭게 수행중지를 이어 받들고 집대성하여 재천명의 원력으로 천일기도를 봉행하고자 큰소리로 발원하나이다.

모든 불자님들이시여

우리 자신들의 업을 갈고 닦아 대 자유의 기틀을 다지고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 청정도량 성륜사를 다시금 큰스님의 법향으로 가득 넘쳐나도록 하기 위한 뜻 깊은 원력의 천일기도에 다함께 동참하시어 무궁한 부처님의 복락을 다함께 누리시기를 지심으로 기원하나이다.

◆ 입 재 : 2007년 5월 31일 (음 4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회 향 : 2010년 2월 24일 (음 1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 법 사 : 성륜사 주지 대만 ◆ 동참금 : 매월 ₩ 33,000원정 (1000일간 매월 내시면 됩니다)

◆ 문 의 : 종무소 ☎ 061)363-0081, 7001~2 ◆ 온라인 : 우체국 500702-01-000363 (예금주 : 성륜사)

大韓佛敎 曹溪宗 설령산 성륜사